

# 트리니다드토바고 공화국으로 애완동물 보내기



**임 표**  
분당 정자동물병원장  
pyolim@hotmail.com

세계화 국제화에 발 맞추어 해외 순방하는 전공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다국적 기업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이유로 애완동물 해외출·귀국 업무를 많이 대행하고 있다. 주로 일본, 중국 외 동남아시아와 유럽, 하와이, 괌 등의 국가로 애완동물 해외출·귀국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노신사께서 트리니다드토바고라는 곳에 가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어디있는 나라인지부터 찾아보고 검역 작업 준비를 했고 얼마전 무사히 도착하셨다는 반가운 이메일을 받았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애견들이 이곳에 갈지도 모르고 한국 최초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준비하시는 모든 수의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출·귀국 업무 기록을 남겨보기로 했다.

들로 이루어진 섬나라다. 카리브해 서인도제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쪽으로 바베이도스, 남동쪽으로 가이아나의 영해와 접해있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생산 처리, 관광업 등으로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번영한 국가에 속한다. 캐리비안 카니발로 유명하며 스틸밴드, 칼립소(Calypso) 뮤직, 림보춤(limbo)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다. 이 작은 나라가 축구와 육상 등 각종 스포츠에 스타들을 많이 배출하였고 전 인구의 40%가 인도인 37.5%가아프리카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과 그다지 긴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카리브해 섬나라들의 맹주국가라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절대 소홀히해서는 안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한다. 최근까지는 상주공관이 없어서 주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겸임을 하고 있었으나 한국대사관이 개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트리니다드토바고 공화국(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이다. 영국연방의 일원으로 베네수엘라 앞바다의 트리니다드섬과 토바고 섬 외에 21개의 작은 섬

구글 검색해서 홈페이지(<http://www.ttconnect.gov.tt/gortt/portal/ttconnect/GoRTTHome>)를 찾아서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는 애완동물관련 규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일단 입국을 위해서는 검역소에 입국신청을 해야 하고 국가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입국 전 최소한 48시간내에 비행계획과 도착시간을 검역소에 알려줘야 한다고 한다.

The Veterinary Officer Havelock Street Curepe  
Trinidad, West Indies

Tel. (868) 662-5986 or (868) 642-0063/4

Opening hours : 8:00 am to 4:00 pm, Monday to Friday,  
except public holidays

검역소의 주소와 전화번호다. 워크 시간이 08:00 am ~ 04:00 pm 이게 문제가 될 줄은 나중에야 알았다.

다음은 광견병 집중이나 광견병중화항체검사 없이 바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목록이다.

Anguilla, Antigua and Barbuda, Australia, Barbados, Belgium, Dominica, Great Britain, Jamaica, Luxembourg, Malta, New Zealand, Northern Ireland, Republic of Ireland, Singapore, St. Kitts/Nevis, St. Lucia, St. Vincent, Sweden,

특이한 점은 비교적 까다로운 규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없다는 거였다. 실제 트리니다드토바고 입국시 절차는 일본과 매우 유사했지만 말이다.

Austria, Bahamas, Bermuda, British Virgin Islands, Brunei, Canada, Cayman Islands, Chile, Croatia, Czech Republic, Denmark, Falkland Islands, France, Finland, Germany, Greece, Greenland, Hong Kong, Hungary, Israel, Italy, Kuwait, Macau, Peninsular Malaysia, Netherlands, Netherlands Antilles and Aruba, Portugal, Reunion, Saba, Sarawak, Seychelles, South Korea, Spain, Switzerland, Untied Arab Emirates, United States of America, US Virgin Islands, Uruguay.

상기 명시된 국가들은 일정 조건만 갖추면 30일 정도의 검역기간을 거쳐서 입국할 수 있다. 반드시 입국전 입국신청과 건강진단서 제출을 해야 하고 애완동물의 마이크로칩이식, 입국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전에 광견병 접종과 접종 후 한달 이후 입국 5개월 전에 광견병중화항체검사(Fluorescent Antibody Virus Neutralisation, Rapid Fluorescent Focus Inhibition Test)를 받아야 한다. 물론 도착 24시간전에 일정을 검역소에 미리 알려야만 한다.

위 목록에 나와있지 않은 국가로부터 입국 시에는 계류 검역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마이크로칩(AVID)을 이식하고광견병 접종을 실시했다. 광견병 접종 후 한달 째 혈액을 채취했고 혈청을 미국맨하탄캔사스주립대학 광견병항체검사실(Kansas state lab, <http://www.vet.k-state.edu/depts/dmp/service/rabies/index.htm>)로페덱스로보냈고 0.5IU/ml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입국규정상 FAVN test가 유효하고 공용어가 영어 국가이니 가장 적합한 실험실일것 같았다. 입국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팩스로 보내고 건강진단서 제출을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다. 입국규정에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았지만 예방접종 기록과 심장사상충 예방 및 내외부기생충 예방이 필요할 것 같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일부 지역은 너무 건조해서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에 살던 견공이 한국

으로 이주할 때 담당수의사가 심장사상충 예방에 대한 조언을 반드시 해 준다고 한다. 아마도 심장사상충 발생지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질병발생 조회를 통해서 트리니다드토바고에도 심장사상충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고 건강진단서 내용에 첨부했다. 직접 작성한 광견병 접종증명서, 광견병중화항체검사 결과서, 각종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진단서(마이크로칩이식 내용 포함, 심장사상충 및 내외부기생충 예방 및 입국 한달 전 감염여부검사결과 포함)를 토대로 중부 검역검사소(경기도 용인소재)에서 국가공인건강진단서와 검역증을 발급받았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했던 그때 문제가 생겼다. 직행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귀국업무대행 시 항공일정에 대한 부분은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알아봐 드려야 하지 않을까 했는데 핏어라인에서도 이곳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사방으로 알아본 결과 일단은 뉴욕까지 미국항공사(아메리칸항공)를 이용하고 이곳을 경유에서 캐리비안 항공을 통해서 입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뉴욕 도착 후 입국관련 서류를 검역당국 의사에 제출하면 입국 확인을 받고나서 도착지(포트오브스페인공항)로 출발하는 캐리비안 항공 탑승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곳 시간으로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이전 이후에 뉴욕에 도착한다면 당연히 경유지에서 오랜시간 기다려야 할 확률이 높다. 또한 캐리비안 항공은 동물의 기내반입이 일체 금지된다고 한다. 또한 도착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이전 이후라면 검역담당수의사가 없어서 도착지 공항내 대기시간이 길어진다고 한다. 한국에서 출발 하루 전에 가까운 검역소에서 출국검역을 예약해서 마치고 국가공인건강진단서(출국 7일전까지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를 받고 나서 미국 뉴욕에 도착해서 입국용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경유비행기로 갈아타셔야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착 후 계류시설에 30일간 머물러야만 한다.

중간 중간에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신규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트리니다드토바고에 부임하시는 신임 대사님의 가족 같은 애완동물의 검역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일을 한 것 같다. 올해 들어 한국에서 애완동물을 보내기 정말 어려웠던 영국의 검역조건이 EU규정과 비슷해지면서 다음달 쯤에는 영국으로 보내는 견공이 생길 것 같다. 언젠가 트리니다드토바고힐튼호텔 비치를 아내와 아이와 산책하는 상상을 하며 긴 글을 마칠까 한다.▼